

전주한옥마을에 '글로벌 웰컴센터' 생긴다

시, 23일 건립 위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등록 진행... 내년 하반기 조성·전북 주요 관광지 소개

전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가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알리고,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종합관광안내소가 전주한옥마을에 구축된다.

전주시는 오는 23일 한옥마을 내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등록을 진행한 다.

한옥마을 오목대 인근에 들어서는 '글로벌 웰컴센터'는 국가관광거점 도시이자 전북 관광 중심지인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최근 관광 트렌드에 걸맞게 소개하는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번 건축 설계공모에서 단순

관광안내소가 아닌 정보제공, 교통예약, 지역연계, 한옥마을 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관광안내시설로 공간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비 운영시간에도 정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배치하고, 동선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시는 오는 23일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뒤 오는 26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6월 14일에는 참가신청자들로 부터 제안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이후 6월 18일에는 공모안 발표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최종 당선작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된다.

시는 올 하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2년 하반기 글로벌 웰컴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글로벌 웰컴센터는 총사업비 65억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582㎡, 연면적 480㎡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한옥 형태로 건립된다. 1층에는 관광안내소 공간과 관광객 휴게 공간, 야외 전망대(누마투) 등이 조성되며, 지하 1층에는 스마트 관광체험(VR존) 공간과 전시·홍보 공간 등이 마련된다. 이곳에는 외국어 능력이 있는 관해설사들이 배치돼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 글로벌 웰컴센터에는 전주의 전통문화 가치를 중심으로 4차 관광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한 안내·전시·홍보시설을 도입될 예정"이라며 "향후 전주한옥마을은 물론이고 전주 전역, 나아가 전북 광역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계공모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조달청(pps.go.kr) 공고를 확인하거나 전주시 관광산업과(063-281-50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상기자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 문제 해결

26일~5월 14일까지 전주시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접수

전주시가 시내버스 정보 등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1년 전주시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내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응모 자격은 전주시 현안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희망지는 전주시 데이터 포털(data.jeonju.go.kr)에서 참가신청서와 PPT 형식의 분석보고서(10매 이내)를 작성해 이메일(joh1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주제 창의성 ▲데이터 적합성 ▲파급성 ▲발표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 중 최우수상 1명(팀)과 우수상 2명(팀)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에는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우수상에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제출된 아이디어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데이터 포털(data.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청 스마트 시티과(063-281-213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용머리여의주마을, 스마트마을로 변신 지역 안전도 높인다

전주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선정

전주 서완산동 용머리여의주마을이 늦은 밤 위치기반 모바일 앱을 통해 안심하고 귀가를 하는 스마트마을로 변신한다.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 4월까지 서완산동 용머리여의주마을에서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등 스마트기술 적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

원사업은 IoT 센서와 지능형 CCTV, 위치기반 모바일 앱 등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정주여건 회복을 돕는 게 핵심이다.

시는 국비 4억8,000만원 등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서완산동 용머리여의주마을에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플랫폼 ▲IoT기반 통합플랫폼 등 3가지 스마트기술을 마을에 적용한다. 특히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의 경우 위치기반 모바일 앱과 전주시CCTV

통합관제센터 플랫폼과 연계해 귀가 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특징이다.

스마트플랫폼은 지능형 CCTV와 미세먼지·대기환경 IoT 센서, LED전광판, 스피커, 비상벨, 스마트가로등이 포함된 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앞서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사업들을 발굴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스마트기술 사업을 통해 협소한 골목, 노후주택 등이 많은 용머리여의주마을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는 용머리여의주마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김운덕 국회의원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기술투자를 적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한옥마을 한옥주택 수선보조금 지원

30일까지 신청... 지붕 수선 최대 2000만원·전통담장 공사 최대 800만원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주택의 노후화된 지붕과 담장, 대문 등의 보수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한옥마을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한옥주택 수선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한옥 단독주택 지붕 등의 수선·대수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전통담장 등 경관 시설물 공사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한옥마을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한옥주택 소유자(한옥채임업 포함)로, 같은 한옥(토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0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063-281-515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사업 신청서 등을 전달할 방침이다. 작성한 신청서와 공사비 내역서 등은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완산구 전동성당길 110)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인의 전문가로 꾸려진 전주시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의 형태, 보존가치, 노후화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화된 한옥 지붕의 누수문제를 해결하고 훼손된 창호 등을 개선해 거주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거주민들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신축, 증·개축 등에 한옥 수선비로 51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지붕보수, 담장 개선 등에 총 4억원 이상을 투입해 32개소의 수선을 도왔다.

허갑수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목조건축물 특성상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전과 일상이 양립하는 전주한옥마을로 만들어가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전주시, 덕진경찰서와 안전 이용문화 정착 위한 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21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덕진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동킥보드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날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 면허 필수 ▲안전모(헬멧)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속

도신호 준수 ▲올바른 주차 등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특히 다음 달 13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시는 향후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대학교 학생회와 합동 계도에 나서는 한편 공동주택 게시판을 활용한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전주교육지원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완산·덕진경찰서와 계도·단속활동



전주시는 21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덕진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을 펼치기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전동킥보드가 더욱 폭넓게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행자와 킥보드 이용자, 운전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